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광야 체험

성경말씀: 마4:1-11

온 세상이 코로나 19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 하루에 2000여 명 사망, 36000명 사망, 끔찍하다. 너무나 오랫동안 집에만 있게 하자 데모, 항의 우리나라도 피폐한 광야를 지나고 있다. 경제 폭망, 반도체 하나 남았다. 더욱이 4.15 총선 자유 보수 세력 참패, 앞으로 반기독교 문화, 입법 등이 시행될 것이다. 광야가 더 피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미리 미리 광야 체험을 해야 한다. 교훈을 머리에 넣어야 한다.

핵심: 신8:2-3,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

모세와 백성의 차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체험

왕상18장 엘리야의 갈멜 산 승리: 왕상17장의 3년 반 동안 광야 체험

광야 체험: 우리에게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1.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아합은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함(18:10)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 홀로 거하는 것

2. 이것을 통해 그를 위대한 대언자로 예비하심

18장에는 아합이라는 무서운 왕,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모세처럼 빈 그릇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 원한다.

마17장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모두가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대다수 교회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 제 사위의 말: 미국 같으면 이스터 선데이,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 예배, 그런데 왜 장인 어른은 부활주일 예배를 안 하는가?

1. 예수님은 지난 주일 즉 4월 12일에 부활하지 않았다. 그 즈음에 부활하셨다.

2. 부활이 중요하지 그 날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 우리는 매주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다.

부활 승리 메시지는 오늘을 위해 남겨 두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광야 체험>

기독교의 부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무엇일까?

마음의 평안, 부귀영화, 만사형통, 아니다!(고전15:19)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요3:16) Yes!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고전15:50)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 새로운 몸을 얻으려고

그러므로 영생은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부활하려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고전15:17-18)

과거 현재 미래에 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허사, 가장 비참한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영생을 주시려고, 맞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몸소 보이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허공을 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히2:14-15)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부활로 입증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자의 필수 조건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 기간에 여러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킴

대표적인 사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남, 썩은 냄새가 남(요11:39)

예수님의 말씀(40),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가?(25-26)

“나사로야 나오라”(43)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고전15:1-4).

그래서 부활의 때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하여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될 것이다(고전15:51-54).

예수님의 광야 체험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구절(히12:2).

예수님 생애의 특징: 멸시와 천대를 받은 뒤 부활하셔서 승리하심, 부활 승리의 필수조건은?

항상 Cross first, Crown next

모세도 엘리야도 다 동일한 패턴, 광야의 체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3장에서 침례, 하나님의 확증(3:17), 12절부터 갈릴리 사역,

왕국의 복음 선포(17), 3년 반 사역,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승천, 결국 승리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11절이다. 한 마디로 광야 체험

1절을 보기 바란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심,

즉 공생애, 부활 승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광야 체험

누가 데리고 가는가? 성령님께서,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40일 동안 굶어가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 일 이후에 결국 승리의 길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 광야를 거친다. 그리고 빈 그릇이 된다.

빈 그릇이 되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마4장에서 보여 주신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시험

첫째 아담의 실패: 창3:5-6,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생의 자랑)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세 가지 요일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 마귀의 첫째 시험(3-4),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예수님의 대답: 신8, 모세의 글 인용

2.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감(5-7), 뛰어 내리라, 인생의 자랑,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3. 세상의 모든 왕국, 내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8-11). 안목의 정욕, 너는 주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일을 위해 빈 그릇이 되어야 함, 그것은 요일2:16의 완성,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수님의 광야의 체험(히2:10), 그 뒤에 부활 승리(14-15), 히5:7

우리에게 적용

앞으로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된다.

1. 코로나 사태로 일단 경제적 충격이 클 것이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꽃물감기,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 확실하다. 실직 사태, 가정 파탄 등

2. 총선 패배로 좌익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뒤 오히려 나는 더욱 더 굳은 결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타락, 교회 문화와 사상의

타락, 그렇게 교회가 커도 아이들 성경 이야기 등도 제대로 만들어 올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사는가?

이것은 문화이다. 지금의 크리스천 문화는 그저 CCM 록음악, 연극 드라마 등이 끝이다. 주일 학교를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누군가가 교재도 개발하고 성경 이야기도 만들고 성경 낭독도 있고 올바른

크리스천 음악도 있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의 애국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올바른

말씀 보급, 선포, 문화 콘텐츠 제작, 좋은 문화 보급 등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제는 그런 일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 광야, 총선 참패 광야, 더 어두워졌다. 죽는 날까지 바른 것을 세우다가 가야할 것이다.

3. 더 크게 보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요구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세계 정부의 필요성, 누군가가 세상을 이끌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자연스레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수록 영적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 성평등 등 모두 반기독교적인 이슈들, 피하기 어렵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광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고후6:10). 존 파이퍼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를 거쳤다. 그 뒤에 결국 부활 승리가 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고후6:10).

광야를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19로 절망하는 분들, 병, 실직, 구직, 경제, 가정...

암 등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4.15 총선 패배, 애타게 밭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나도 같이 울고 싶다. 이렇게 무지할까?

예수님 시대가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거부함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광야 투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용, 인세의 자랑 물리치고 3년 반 공생애, 부활 승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